

# ‘집행률 부실’ 전남 7개 시·군 지방소멸대응기금 삭감 위기

### 전남도, 기금 집행률 30% 미만 지역 관리·감독 강화 나서 사전 행정 절차·계획 변경 등 주기적 집행 실적 점검 당부

전남도는 장흥군을 비롯한 전남지역 시·군 상당수가 정부로부터 교부받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이하 기금)을 지역사회에 제대로 투입하지 않고 있는 데 따른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가 기금 집행실적을 높이기 위해 집행률이 저조한 경우 전액 삭감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만큼 자칫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지역 주도의 사업 추진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게 전남도 입장이다. <광주일보 11월 6일자 3면>

6일 전남도에 따르면 최근 정사내 정철실에서 22개 시·군이 참여한 가운데 ‘제 8회 도·시·군 부단체장 영상 협의회’를 열고 현안 사항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협조를 당부하는 한편, 지역별로 추진하는 행사에 대한 적극적 참여를 요청했다.

최근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난 일부 기초자치단체의 저조한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에 대한 제고 방안도 안건으로 채택, 논의됐다.

전남도는 16개 시·군의 ‘2022년~20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을 들어 집행이 부진한 기존 사업 기간을 단축하거나 과감한 계획 변경 등을 강구토록 하는 한편, 2025년 투자계획 확정 이후 집행률 제고 방안도 마련해 세부계획을 수립토록 당부했다.

전남도는 지난 9월 말 기준으로 16개 지역의 기금사업 집행률을 분석한 결과, 장흥·해남·영암 등 3개 지자체는 2022년 기금 집행률이 30% 미만, 영광은 50% 미만인 것으로 파악했다.

2023년 기금의 경우 집행률 30% 미만인 지자체는 장흥·곡성·구례·보성·해남·영광·진도 등 7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기금 집행률이 저조한 경우 집행을 제고할 수 있도록 기금의 일부 또는 전액 삭감 입장을 밝힌 상태다.

구체적으로 2022년 기금 집행률이 50% 미만(2024년 말 기준)인 경우 2024년 기금을 25~50% 삭감하고 2022년 기금 집행률이 30% 미만(2024년 말 기준)일 때는 2025년 기금을 전액 삭감하겠다는 게 행안부 방침이다.

지자체가 수립한 안정적인 투자계획과 전문성 부재, 더딘 행정 절차 등이 자칫 지역 개발 사업에 차질을 불러올 수 있다는 얘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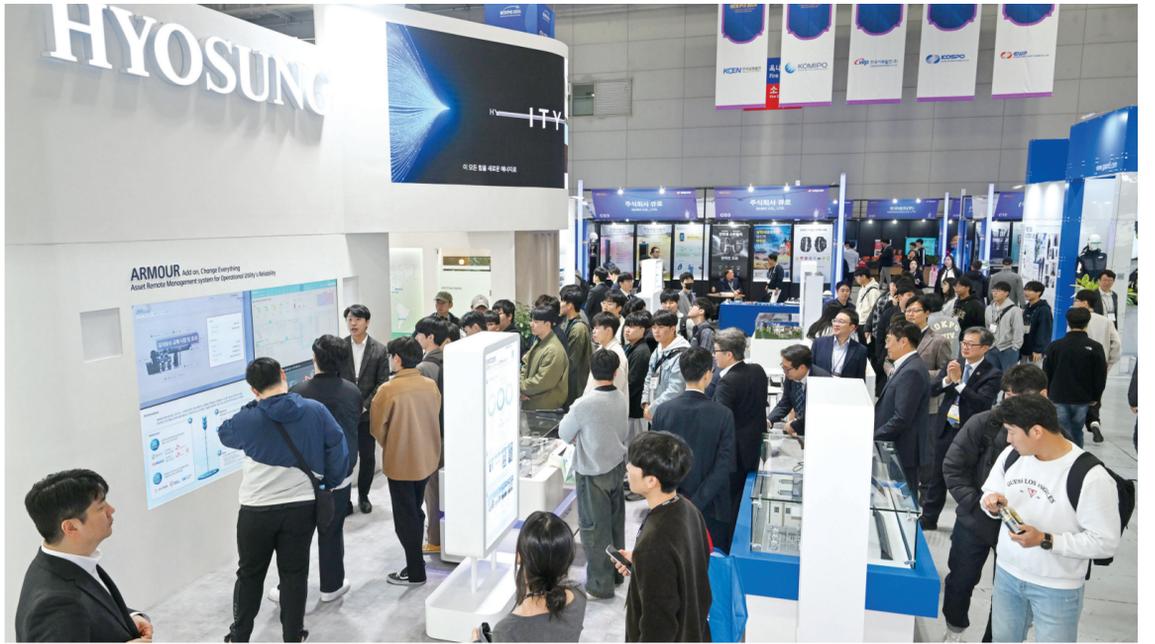
전남도는 이에 따라 기금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사전 행정 절차 추진 및 계획 변경, 주기적 집행 실적 점검 등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자문위원회(미래위)의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호남권 의견 수렴 일정(11월 8일)을 공유하고 적극 의견을 개진키로 했다.

미래위는 광역·시·도 통합, 시·군·구 통합, 대도시 거점 기능 강화, 자치단체 기능 조정, 특별자치단체 활성화 등 민선자치 30년간 유지되어 온 지방행정체제의 새로운 방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출범, ‘행정체제 개편 권고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오는 20일 국회에서 열리는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 국회 세미나’ 관련 된 관심도 촉구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에너지 신기술 집약 ‘빅스포’ 개막  
글로벌 전력·에너지 산업 엑스포인 ‘빅스포(BIXPO-빛가람 국제 전력기술 엑스포) 2024’가 6일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막했다. 8일까지 진행되는 빅스포는 한국전력공사에서 주최하는 글로벌 전시·화학술대회로 국내외의 200개 기업에서 약 2만명 이상의 전력 산업 전문가가 참가한다. 사진은 빅스포 내 효성중공업 부스가 관람객들로 붐비는 모습. 효성중공업은 국내 최초로 개발에 성공한 200MW급 전압형 HVDC(초고압 직류송전 시스템)와 고객 맞춤형 ESS 등을 전시한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광주시 오늘 광주학생독립운동 유적 보전 심포지엄

### 5·18기록관서...전남도와 100주년에 국가지정유산 승격 추진도

광주시와 (재)한국학중앙연구원 등이 7일 오후 2시 5·18민중화운동 기록관에서 광주학생독립운동의 발상지·진원지의 학술적 가치를 발굴하기 위한 심포지엄을 연다고 6일 밝혔다.

또 광주시·전남도가 함께 학생독립운동 100주년이 되는 2029년에 주요 운동 유적의 국가지정유산 승격을 추진하기로 했다.

심포지엄에서는 박찬승 한양대 교수가 ‘학생독립운동의 역사적 의의와 가치’를, 신용우 조선대 교수가 ‘광주학생독립운동의 역사 현장과 보존’을, 김중순 전 나주시 문화예술과장이 ‘나주학생독

립운동의 역사현장과 보존’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장우권 전남대 교수가 ‘학생독립운동의 해외평가와 국제연대’를, 노성태 남도역사연구원장이 ‘학생독립운동의 국가지정유산 승격방안’을 주제로 발표하며 한규무 광주대 교수를 좌장으로 종합토론이 펼쳐진다.

학생독립운동은 1929년 11월3일 나주역과 광주역에서 광주고등보통학교(현 광주제일고), 광주공립여자고등보통학교(현 전남여고), 광주사범학교(현 광주교대), 광주농업학교(현 광주자연과 학교) 학생 주도의 항일운동으로 우리나라를 비롯

해 중국·미주까지 확산했다.

광주시는 1999년 광주학생독립운동을 주도한 학생들이 다닌 학교 중 비교적 원형이 남아있는 광주고교사터(광주제일고), 광주여고보교사(전남여고)를 시 지정 문화유산기념물 ‘광주학생독립운동발상지’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전남도는 2000년 나주역을 도 지정 문화유산기념물 ‘광주학생독립운동 진원지 나주역사’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광주시·전남도는 학생독립운동 100주년이 되는 2029년에 광주고교사터, 나주역 등 학생독립운동 유적의 국가지정유산 승격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혜나 기자 khn@kwangju.co.kr

## 전남도, 내년 농기계 임대사업 138억 투입

### 사업소 설치·일관기계화 등 인력부족 해결·생산비 절감 기대

전남도가 인력 부족 해소와 농기계 구입에 따른 농가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농기계 임대사업에 내년에 국비 69억원을 포함해 138억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농민들이 쉽게 농기계를 빌릴 수 있도록 분소를 설치하고 노후 농기계를 교체하는 한편 파종부터 수확까지 전 농업 과정에 필요한 농기계를 시·군에 지원할 예정이다.

6일 전남도에 따르면 농기계 임대사업비 국비 275억원으로 이 가운데 69억원을 확보해 지방비 포함 138억원을 확보했다.

세부 사업별로 ‘농기계임대 사업소(분소) 설치’는 여수시, 영암군 등 2곳으로 전체 사업비는 18억원(국비 9억원)이다. 마늘, 양파 등 ‘주산지 일관 기계화’ 사업비는 96억원(국비 48억원)이며 대상은 나주, 고흥, 강진, 해남, 함평, 신안 등 11

곳이다. 임대사업소에 비치된 ‘노후농기계 대체 사업비’는 전체 20억원(국비 10억원)이며 개소당 2억원이다. 대상은 담양, 곡성 등 10곳이다.

도로 주행 중 농기계 사고 예방을 위한 등화장치 부착 지원은 3250대에 3억2000만원(국비 1억 3000만원)이다.

정광현 전남도 농축산식품과장은 “농기계임대 사업소는 최근 4년간 임대료 103억원을 감면하는 등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고령화에 따른 인력 부족과 생산비 증가 등 농촌의 고질적 문제 해결을 위해 자율주행 농기계를 비롯해 드론, 로봇까지 확보해 임대사업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대·자·보 도시 광주’ 프로젝트 본격화

### TF 구성...추진 전략 등 논의

광주시는 6일 ‘대·자·보(대중교통·자전거·보행 중심) 도시 광주’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 전담팀(TF)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전담팀은 고광원 행정부시장과 실·국장, 자치구 관계자 20여명으로 구성됐다.

전담팀은 전날 시청에서 첫 회의를 열고 ‘대·자·보 도시’ 비전과 목표를 공유하고 주요 추진 전략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자·보 전환은 시민 공감대 형성이 최우선인 만큼 실증공간 조성, 공문화, 기획·실천, 사람 중심의 차량 흐름 등 실행 계획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9일 시청 1층 시민홀에서 ‘대·자·보 도시 광주’를 위한 시민 속의 및 공동이행 협약식을 연다. 협약식에서는 시민실천단 100여명이 속의 과정을 거쳐 나온 ‘시민 제안서’를 작성하고 ‘광주시민의 다짐’을 선언한다.

시는 11월 주요 인사와 공직자가 참여해 대중교통·자전거·보행 출퇴근하는 챌린지를 한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광주시 주요 인사들이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등에 인증사진을 게시하는 릴레이 방식으로 진행된다.

/김혜나 기자 khn@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의결 제 240326-중-166833호] [광고]

## 허리 통증이 심할때는

# 첨단우리병원

**허리 디스크 협착증**

미세현미경 수술  
척추 내시경 수술  
고주파 수핵 감압술  
척추 유합술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970-6000  
광주과학기술원 / 호수공원 앞

## 신협이 활짝 피었습니다

든든한 금융의 힘으로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당신을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평생 어부바  
**신협**